

## 최용해 좌천의 배경과 의미

박 형 중 (북한연구센터 소장)

Online Series CO 14-05

4월 26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열렸다. 여기서 총정치국장 최용해가 해임되고 황병서가 임명되었다. 이는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최용해 신변이상설은 지난 2월부터 등장했다. 최용해는 이제 당근로단체 비서 직책을 맡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 언론은 이를 두고 최용해의 좌천이라고 한다. 그는 왜 좌천되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 글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조연준과 황병서, 그리고 근로단체 부장인 이일환 등 과거 고영희-이제강 계열의 인물이 부상하는 가운데 최용해가 좌천된 것에 주목한다. 고영희-이제강 계열은 2013년 말 장성택-김경희 계열을 몰락시키고 김정은 치하에서 권력의 신주류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수령독재 체제인 북한에서 주요 세력의 부침은 수령의 의지에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 장성택-김경희 계열이 득세했던 것이 김정일의 의중을 반영했다면, 이제 고영희-이제강 계열의 득세는 김정은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최용해가 좌천된 진짜 이유는 그가 과거 고영희-이제강 계열과 한패가 아니었고 앞으로 그 다지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용해와 같은 비중의 인물이 군대 내 정치사업을 잘못된 것 때문에, 또는 건강 악화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좌천된다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 핑계일 것이다. 물론 총정치국장이 된 이후 최용해가 군인들을 과도하게 건설사업에 동원함으로써 정치사업을

소홀히 했을 수 있다. 그렇다 해도 군인들을 건설사업에 동원하도록 한 책임의 상당 부분은 김정은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권력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보가 부족하며 부정확한 것이 많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몇 개의 가설을 세워놓고, 사태의 진전 그리고 추가 제공되는 정보에 맞추어 끊임없이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것도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 과정에서 권력 동향을 파악하는 하나의 가설, 그리고 최용해 실각 이유에 대한 하나의 가설이다. 아래에서 이를 자세히 알아본다.

애초에 고영희 아들로 권력을 세습한다는 프로젝트를 발동시킨 것은 고영희-이제강-선군군부 계열이었다. 이들은 2002년 경 고영희 우상화를 추진했지만, 김정일에 의해 중단 당했다. 아울러 나중에 김정은의 후계 구축이 실제로 진행되는 동안에도 김정일은 고영희-조직지도부-선군군부 계열의 인물을 중용하지 않았다.

세습 후계 구축 과정에서 김정일이 중용했던 것은 장성택-김경희 계열이었다. 김정은은 2007년 이미 세습후계자로 내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바로 2007년부터 장성택의 권력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장성택은 2007년 행정부장이 되었다. 2008년 8월 김정일의 건강악화 및 2009년 1월 김정은 후계 공식화 선포 이후, 장성택-김경희가 사실상 김정은 후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후견세력으로 등장했다. 수령독재의 특성상 이는 김정일의 선택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후 장성택의 정치적 역할에서 핵심은 조직지도부와 군부를 견제하는 것이었다. 장성택을 중심으로 행정부의 권한과 이권이 비대화되었고 상대적으로 조직지도부는 위축되었다. 또한 장성택이 실무 책임을 담당하는 가운데 군부 무역활동에 대한 축소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성택 개인이 관장하는 권력과 이권도 팽창했다.

수령독재의 특성상 김정일이 장성택에게 임무를 맡기고 후원하지 않았다면 장성택의 이와 같은 역할과 권세 확대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김정일이 장성택을 내세워 조직지도부와 군부를 견제했으며, 김정일은 무엇인가 그해야할 정치적 필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사망은 장성택 권력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 소멸한 것을 의미했다. 장성택은 김정일의 후원을 배경으로 권세를 확장했으며, 김정일의 후원이 있어야만 권세를 지탱할 수 있었다. 그런데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새로운 수령이 된 이후부터 장성택과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과거 고영희-이제강 계열의 인물들이 점차로 재 득세했다. 이는 새로운 수령 김정은의 의중을 반영했을 것이다.

김정일이 장성택을 후원했다면 김정은은 장성택을 견제하고자 했다. 그 이유는 수령독재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김정일의 정치적 필요와 김정은의 정치적 필요가 달랐기 때문이었다. 김정일이 장성택을 앞세워 조직지도부와 군부를 견제한 것은 이들의 권세가 지나치게 팽창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권력 세습 과정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은 장성택과 최용해에 힘을 실어주고 활용하여 군부를 효과적

으로 재편하는 데 성공했었다. 이러한 역할 때문에 장성택과 최용해는 실각한 군부 주요 인물들의 원성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군부 재편 이후에 김정은은 그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수령 등급 이후 김정은이 당면한 최대 세력은 장성택이었을 것이다. 장성택을 견제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도는 그간 장성택 권세 확장의 최대 피해자였던 군부와 조직지도부의 적극적 지지를 받았거나 또는 요구를 반영했을 것이다.

장성택 숙청 과정에서 그리고 숙청 이후 과거 고영희-이제강 계열의 인물이 재 득세하는 것이 두드러진다. 장성택을 숙청하는 데서 과거 이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 2014년 4월에는 최용해도 총정치국장을 그만 두어야 했는데, 그를 대신한 인물은 황병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었다. 황병서는 “1990년대 후반 고영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반대에도 당 조직지도부와 군 고위간부를 내세워 김정은 제1위원장을 후계자로 내정하기 위한 작업을 은밀히 추진할 때 손발을”<sup>1)</sup> 맞추던 인물이었다.

4월 27일 총정치국장에서 해임된 최용해는 당근로단체 비서가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흥미로운 것은 이에 앞서 4월 중 이일환이라는 인물이 당근로단체 부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이일환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1비서를 지내면서 당시 김 제1위원장의 모친인 고영희에 대한 ‘어머님’ 우상화 작업에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졌다.”<sup>2)</sup> 위계상 당근로단체 부장은 당근로단체 비서의 직속 하급자이다. 그런데 지금의 권력 형세로 보아, 하급자인 이일환이 상급자인 최용해에 복종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둘째, 최용해가 근로단체 비서라는 상대적으로 한직으로 좌천되었다면, 그가 설령 다른 직책을 유지한다 해도 실권을 누리질 못할 것이다. 최용해는 4월 13일 13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한바 있었다. 당시 최용해가 맡고 있던 직책은 총정치국장, 정치국 상임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인민군 차수였다. 그런데 최용해가 더 이상 총정치국장이 아니라면, 그가 다른 직책을 계속 유지해야 할 명분이 없어진다. 아울러 앞서 지적했듯이, 최용해는 당근로단체 비서이지만, 실질적 권한은 그 아래의 이일환 당근로단체 부장이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즉 최용해는 단순 좌천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실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용해의 정치적 쓸모가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는 충성의 화신이라 하는 최현의 아들이자, ‘대를 이어’ 김정일에 충성했던 항일 빨치산 2세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그를 권력의 연극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시키는 것은 김정은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 KINU 201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최선영, “‘김정은과 인연’ 北 고위인사들 승승장구,” 『연합뉴스』, 2014년 4월 28일.

2) 장용훈, “북 노동당 내 ‘장성택 그림자’ 지우기 본격화,” 『연합뉴스』, 2014년 4월 13일.